

구 후루카와 정원

일본과 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다이쇼 시대의 정원



지정관리자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공원협회

기념 스탬프 날인란

국가 지정 명승
구 후루카와 정원

■ 개원 년월일
1956년 4월 30일

■ 개원면적
30,780.86㎡

■ 개원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따라 개원 시간이 연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 **휴원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1일)
※유지권리의 사정으로 12월~2월 사이에 3일 정도 오후만 휴원합니다.

■ 무료공개일
미도리(녹색)의 날(5월4일)
도교도민의 날(10월1일)

■정원 가이드(무료, 일본어)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11시와 오후2시, 하루 2회)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실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규후루카와 정원 서비스센터
전화 03-3910-0394
우편번호 114-0024 東京都北区西ヶ原
(기타구 니시가하라) 1-27-39

입 장 료	개인	단체 (20명 이상)	연간 패스포트 (구후루카와 정원)	연간 패스포트 (정원 9곳 공통)	
	일반	150엔	120엔	600엔	4,000엔
	65세 이상	70엔	50엔	280엔	2,000엔
	무료	초등학생 이하(보호자 필수) 및 중학생(도내 거주 또는 재학)			

구후루카와 정원・리쿠기엔 공통 ‘엔루스비’ 입장 일반 400엔 65세 이상 200엔

서양관 견학 요금이 별도 필요합니다

서양관 • 다실 / 관리 : (공익재단법인) 오타니 미술관 전화 03-3910-8440

※ 규슈루카와 정원의 입장료가 별도 필요합니다. ※ 자세한 것은 문의하십시오.



【오시는 길】

《전철》
JR게이힌토호쿠선
'가미나카자토'에서 하차,
도보 7분

지하철 난보쿠선
'니시가하라'에서 하차,
도보 7분

JR야마노테선
'고마고메' (북쪽 출구)에서
하차, 도보 12분

※주차장은 없습니다.

리쿠기엔 정문까지 도보 20분
소메이 문까지 도보 13분



문화재 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도쿄도립 공원은 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와 도쿄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 도시화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 소중한 존재가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후세까지 계승되도록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부탁말씀】

○애완동물 동반, 정원에서 동식물 채집, 매트 사용, 주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 건물 및 천연물의 보호를 위해
장소에 따라 사진촬영 및 스케치를
사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는 전면 금연입니다.
흡연소는 없습니다.

도쿄도립 문화재 정원 9곳

하마리큐 온시 정원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리쿠기엔 정원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우고시마 맥와켄

기요즈미 정현
그 후크리치 리치

드니 카산트 적의

<https://www.tokyo-park.or.jp/teien/kr/>

호창하고 멋진 건물,
일본식과 서양식의 정원, 다이쇼 시대의 숨결과 만날 수 있는 상쾌한 공간.

무사시노 대지의 사면과 저지대로서의 지형을 살려 북쪽 언덕에는 서양관을 짓고, 사면에는 서양식 정원, 그리고 저지대에는 일본 정원을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은 원래 메이지 시대의 원훈인 무쓰 무네히쓰의 저택이었는데, 무네히쓰의 차남이 후쿠가와 일족에게 입양했을 때 후쿠가와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당시의 건물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서양관과 서양식 정원의 설계자는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에 걸쳐 로쿠메이칸, 니콜라이 성당, 규이와시키테이 정원의 서양관을 지어 일본 건축계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한 영국인 건축가인 죠사이아 콘도르(1852~1920)입니다. 일본정원을 만든 사람은 교토의 정원사인 오가와 지헤에(1860~1933, 호는 우에지)로 서양식 정원에도 뒤지지 않는 매력적인 정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규후루카와 정원은 다이쇼 시대 초기의 정원의 원형을 오늘날에 전해주는 귀중한 존재이며 2006년 1월 26일에 '규후루카와씨 정원' (문화재로서 지정된 명칭)으로서 나라의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조 서양관 (오타니 미술관)

영국 귀족의 저택을 본뜬 고전 양식으로, 건물이 천연 슬레이트 지붕과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벽은 마나즈루 지방에서 생산된 붉은 빛을 띤 신코마쓰이시(안산암)가 붙여져 있으며 비에 젖으면 차분한 색조를 보여줍니다.



서양식 정원

테라스 양식의 정원에 심어진 장미는 봄과 가을에 멋진 대륜의 꽃을 피우며 서양관의 풍경과 어울려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하게 해줍니다.



단풍의 일본정원

일본정원

일본정원의 중심은 신지이케 연못입니다. 우아한 곡선이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오타키 폭포, 가레타키(가상폭포), 유키미 등롱이 주변의 화초와 어울려 정원의 풍경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가레타키(가상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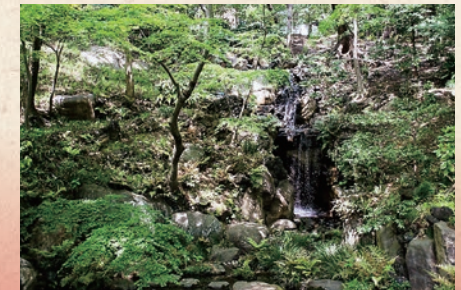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산수의 경관을 표현하는 '가레산수이'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가 '가레타키'입니다. 신지이케 연못의 모래톱 안쪽에 있는 계곡의 수원으로서 가레타키가 있습니다.

신지이케 연못

'心'의 초문자 모양을 본떠 구라마 평석(平石)과 이요 청석(靑石) 등으로 만들어진 연못. 연못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후나쓰키이시'가 있고, 정면에는 '아라이소', 유키미 등롱, 가레타키, 석조, 그리고 뒤편으로는 석가산이 보입니다.

오타키 폭포

10여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정원 안에서 가장 비탈진 곳을 더 깎아내려 낭떠러지 처럼 만들고 웅장한 수림으로 덮고 있어 심산계곡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흐름으로 시작되고 수단계의 작은 폭포가 된 후 마지막에 깊은 골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정교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물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는 오타키 폭포

휠체어 통행 루트

휠체어 이용 가능 루트(보조자가 필요함)